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능한 SFTS\*, 예방·관리 위한 사람-동물 공동 감시체계 운영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사람에게서 치명률 12~47%로 높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신속 대응이 중요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난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동물병원 기반의 감시체계 운영
- 사업대상 확대(군견 및 군견병) 및 참여기관 추가(국방부(육군본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를 통해 보다 촘촘한 SFTS 사람-동물 전파사례 감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수의사, 반려동물 종사자, 군견병 등)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방부(육군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대한수의사회

SFTS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2~47%\*로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조기인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3~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18.7%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 손상된 피부(점막)가 노출될 경우 2차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6년간 반려동물 보호자 및 수의사 등 16명이 동물을 통해 SFTS에 2차감염되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함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동 감시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총 73건 (65마리)의 동물 양성사례 및 2건의 2차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가 “SFTS 2차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관련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응답자)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363명(수의사 288명, 종사자 75명)
- (SFTS 인식개선) SFTS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75.7%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SFTS 양성동물 신고 필요성) 9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SFTS 감시체계 필요성)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진드기에 물렸거나, SFTS 의심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SFTS 검사 적극 실시, SFTS 양성동물의 밀접접촉자 대상 증상 발생여부 모니터링, 동물병원 종사자 교육·홍보 등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하였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기 노출 및 SFTS 감염위험이 높으며, 군견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군견병과 수의장교는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기관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많은 서울시 내 동물 SFTS 검사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 동물병원에 내원한 동물과 군견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극 SFTS 검사, ▲ SFTS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유, 양성 동물의 ▲ 밀접접촉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 시 ▲ 신속한 병원 진료 안내 등 의심환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군견 관리자 등

아울러, 고위험군의 인식제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의심사례 발생 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다각적 공동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람-동물-환경에서의 SFTS 전파 기전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군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다부처 참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는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등 군부대 관계자분들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사업 개요  
 2.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문  
 3.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동물 보호자용)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장	황경원 (043-719-7160)
<총괄>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현수 (043-719-7161)
			보건연구사	황지혜 (043-719-7167)
담당 부서	감염병진단분석국	책임자	과장	한명국 (043-719-8190)
	바이러스분석과	담당자	보건연구관	이덕용 (043-719-8191)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장	정승교 (054-912-0360)
	방역감시과	담당자	수의연구관	조성준 (054-912-0394)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장	강해은 (054-912-0857)
	해외전염병과	담당자	수의연구관	노인순 (054-912-0843)
담당 부서	육군본부 의무실	책임자	대령	정해도 (042-550-1650)
	보건위협대응과	담당자	중령	한현정 (042-550-1651)
담당 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팀장	이수웅 (062-949-4350)
	질병연구팀	담당자	보건연구사	채수진 (062-949-4377)
담당 부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책임자	팀장	강경숙 (02-570-3435)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	담당자	수의연구사	채희선 (02-570-3437)
담당 부서	(사)대한수의사회	책임자	부 장	김동완 (031-702-8686)
	수의정책국	담당자	차 장	김홍석 (070-4907-0041)

□ **배경 및 목적**

- (배경) 일본 등에서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수의사 등 노출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 감시·예방조치 필요
  - \* 동물병원 종사자, 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군의관, 군건강관리자 등
- (목적)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예방·관리, 고위험군 보호, 환자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SFTS 통합 감시체계 운영

□ **추진방향**

- 사람-동물(동물, 군견 등)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 SFTS 양성동물 밀접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한 2차감염 조기인지 및 유증상자의 신속 치료
- 고위험군 대상 SFTS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4. 17. ~ 11. 30. (약 9개월)
  - ※ 참여기관 :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방부(육군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수의사회, 전국 동물병원, 민간진단검사기관 등
- (사업내용) 동물(군견) SFTS 적극 검사, 양성 시 밀접접촉자 관리 강화
  - (의심동물(군견) SFTS 신속진단) ① 진드기 교상, ② SFTS 의심증상이 있는 동물 및 군견 대상 적극 SFTS 검사 실시
  - (SFTS 양성동물 신고) SFTS 확진 시 동물병원·육군본부·진단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에 검사결과 공유
  - (SFTS 밀접접촉자 관리) 동물(군견) SFTS 확진 시 밀접접촉자(축) 신속 파악,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증상 발현 시 검사 등 안내
    - \* 동물병원, 군부대에서 제공한 밀접접촉자 대상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동안 증상발생 여부 모니터링 실시



“건강한 사람, 건강한 동물” 감염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 예방 및 환자 조기 인지를 위한

#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



SFTS 감염 동물(개, 고양이 등)의 혈액이나 체액(구토액, 소변, 침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SFTS에 2차감염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의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동물 진료 시 문진 및 혈액검사를 통해 SFTS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상증상 확인: 고열(39℃ 이상), 무기력, 식욕부진, 소화기증상(설사 또는 혈변, (혈액성)구토), 황달  
\* 심급성 병중 진행으로 인한 폐사 발생 시에도 SFTS 의심
- ② 문진 실시: 증상발현 전 14일 이내 야외활동력이나 진드기 물린 경험 확인
- ③ 혈액검사 실시: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ALT/AST/CPK 증가 등 확인

## ☑ 동물의 SFTS 감염이 의심되면 2차 감염에 주의하여 진료합니다.

- ①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 및 동물의 혈액, 체액 등 접촉 최소화  
\* 1회용 N95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안면보호구(face shield·고글 등)
- ② 동물 입원 필요 시 격리 입원 조치
- ③ 보호자에게 안내문 제공 및 반려동물 SFTS 검사 실시 등 안내

## ☑ 동물 SFTS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시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외 진단기관\*으로 검체송부 및 SFTS 검사 의뢰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 054-912-0843), 그 외 진단기관은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로 문의
- ② 서울특별시 내 동물병원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SFTS 검사요청 가능  
\* 서울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 02-570-3437)
- ③ SFTS 검사결과 양성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으로 유선 통보\* 후  
질병관리청 안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SFTS 발생 기초정보(서식 2) 및 밀접접촉자 명단(서식 4) 공유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68, 7177, 7167)

## ☑ 보호자에게 결과 안내 및 동물병원 내 밀접접촉자 증상 발생 유무를 체크합니다.

- ①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검사결과(SFTS 확진) 통보하고  
건강상태 체크(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까지) 후 증상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
- ② 동물병원 내 밀접접촉자 대상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까지 증상 발생 유무 모니터링 실시(서식6)
- ③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의심증상(고열, 소화기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68, 7177, 7167)에 유선으로 알린 후
- ④ 의료기관(감염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의사에게 SFTS 감염 동물과의 접촉력 알리기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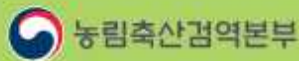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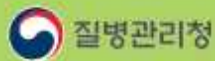
대한수의사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족, 행복한 반려가정  
감염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요!

#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이 감염된 경우  
드물게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로부터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SFTS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무엇일까요?

- ◆ SFTS는 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산책 등 풀과 접촉하는 야외활동 중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며, 드물게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소변, 침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 SFTS 치명률은 약 20%로 다른 감염병에 비해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SFTS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우리 반려동물이 'SFTS 양성'으로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접촉일로 부터 14일까지** SFTS 의심증상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 38°C 이상의 고열, 근육통, 설사·오심·구토 등 소화기 증상, 출혈 등

2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에 전화하기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67, 7168, 7177

3



의료기관(감염내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과의 접촉력이 있음을 알리고 진료받기**

### 2.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



① 물리적(울타리 등)으로 분리하기

② 동거 가족과 다른 반려동물이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2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후 격리입원 권고

① 이동시 이동용케이지 이용

3



반려동물이 머물렀던 공간, 장난감, 배설물은 소독제로 소독하기

① 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알코올사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정 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i>Dabie bandavirus</i> )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 분류	제3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i>Phenuiviridae</i> 과 <i>Bandavirus</i> 속에 속함)
매개체	주요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 <i>Haemaphysalis longicornis</i> ), 개피참진드기( <i>Hamaphysalis flava</i> ), 몽뚝참진드기( <i>Amblyomma testudinarium</i> ), 일본참진드기( <i>Ixodes nipponensis</i> ) 등
감염원	<i>Dabie bandavirus</i>
감염경로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간 전파 보고: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잠복기	5~14일(중앙값 9일)
호발시기	4월~11월
호발대상	주로 50대 이상
임상증상	주증상은 38°C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혈청효소이상)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 검체(혈액)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명률	12~47% 정도 (2013~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18.7%)
치 료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관리	□ 환자 관리: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 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 접촉자 관리: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 주의